

섬김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정말 업혀도 돼요?
난 혼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업혀보면 안 될까?

혼자 가면 내 책임이지만,
업히면 예수님이 책임입니다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3번 - 시편 23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찬 송 / 27장 - 빛나고 높은 보좌와 / 3-4절 (통일찬송 27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양 / 다 와서 찬양해 찬 송 /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찬송 511장) 봉 헌 / 최선운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413장 -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찬송 470장) 성경말씀 / 요나 1:11-2:1 조심을 잃지 말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4:11-16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합심기도 점심친교 후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1:30 p.m.
- 사역훈련 주일 오후에 안수집사 교육이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1:45 p.m. 컨퍼런스 룸)
-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시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방역Update 일리노이 주정부의 지침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9월/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 교회 이전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사역 - 선교 주간(19-25) 선교 주일(26)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9월 생일축하♥ 이정운(30)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9/12	9/19	9/26	10/3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9/12	9/19	9/26	10/3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더는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 요나 1:7-13**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견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전에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가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요나를 보라. 하나님을 떠나려는 요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기까지, 소중한 재물들이 바다위로 던져졌고, 모두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요나 한 사람을 붙드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더 어두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자.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서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될 일이다.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조심을 잃지 말자 / 요나 1:11-2: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축복을 전했다.
- 하지만, 적국 앗수르 니느웨 시민들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 이방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깨닫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
-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조심을 잃지 말자. 조심을 잃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자 / 요나 1:11-2:1

초심의 각오와 결단을 잊지 않고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나에게 있는지 점검할 때이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전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이스라엘은 국력과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신실하게 전하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달라졌다. 원치 않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인지상정일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즐겁지만, 싫어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가고 쉽지 않은 곳, 하고 쉽지 않은 일, '요나의 니느웨'라도 그 곳에서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요나가 초심을 잃은 결과는 어땠는가. 이방인들이 불순종으로 벌 받는 요나를 구하려 애를 쓸 수록 풍랑은 커져 배는 파선되기 직전이었다. 요나를 살리려는 뜻을 접고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될 때, "주 여호와께서는 뜻대로 행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는다. 요나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원수 니느웨를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했다.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선택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이미 해법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은 가라앉았다. 이런 직접체험을 통해 모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다.

바다에 던져진 순간, 요나는 하나님 의도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마찬가지로 위기들을 겪으며, 우리도 간혹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했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은가?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간 요나를 위해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요나가 받았던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도 경험한다.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초심을 잃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눈물 흘리며 기도 하던 열정.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교회를 향한 헌신과 내려놓음. 겸손하게 무릎꿇던 순종. 이런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요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7-

저희는 7월 1일부터 센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면수업을 조금은 두려워 했으나 지금은 즐겁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다고 고백을 하며, 줌으로 계속됐던 성경 공부로 위로 받아 점차 성경을 읽는 시간이 좋았진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비누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거리에서 비누를 나누어 주다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함께 기도했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코로나로 ICU 에서 의사도 포기한 상태에 있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어주과 아들이 마약으로 삶을 잃었던 아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한다고 고백을 할 때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됐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희와 교제를 하는 분들과 학생들, 특히 지하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어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부수고 몸만 겨우 나왔다고 합니다. 네팔 학생의 친구 가족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저희 팀은 물을 퍼내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지하를 개조한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최대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면서 지상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가구들과 옷들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위의 성경 말씀이 참됨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일년 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힘을 준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계심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모두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새로와졌습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모습

기도해 주십시오!

- * 성경공부를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 주변에 주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 * 나누어 주는 비누를 통해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수 있도록
- *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되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 * 저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평안함은 잠깐뿐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기도해도 안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믿음인가,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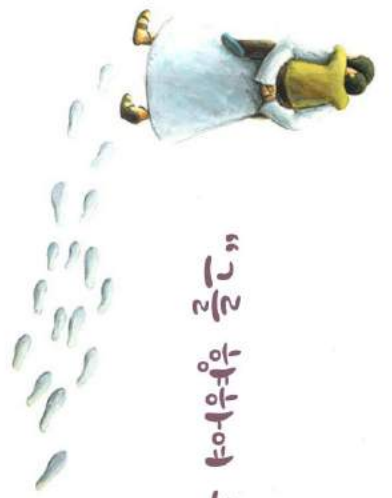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예배해도 고난이 여전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해지지 않을 수 있다.

삶이 그렇다. 그게 삶이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신재웅,
『페이지처치 2 쓰러진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리이성등을 ~어유는 ~은음 ~배표 ~은 기이이이 ~어유배르근 ~어 ~어니니 ~니2상 ~어유유 ~르근”

하:5 ~기 ~유공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